



win-win할 수 있는 공감대 필요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지난 6월 26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서체환경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인쇄센터 TF팀 신익재 강사는 “최근까지도 인쇄 업계는 포스트스크립타입1(고해상도 출력용 서체) 서체와 오픈타입용 서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디지털인쇄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돌커뮤니케이션 석금호 대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비전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공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큐브테크 이원규 상무는 “OS X환경, OTF환경, CTP환경으로 변화해 가는 인쇄환경에서 고객이 안심



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한국하이텔베르그 김범식 대표이사는 “그동안 서로 간의 오해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든, 서체든 정품을 구매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히면서 “현재 국내 인쇄시장에서 오픈타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못 미치고 있는데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김유석 이사는 “오픈타입이라는 서체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찌 보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서체회사들의 현주소와 향후 입장을 들여보는 것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체업계의 윤디자인연구소 천대필 부장은 “폰트유통 구조가 과거의 유통구조를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는 오픈타입 서체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픈타입으로 갈 경우 디자이너의 선택단계에서부터 인쇄물제작단계에까지 공정하게 부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지소프트의 홍기익 상무는 “우리 모두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OS X환경과 오픈타입 서체가 새로운 기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맥플러스의 김영철 대표는 “최신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G4, G5 등 A/S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는

중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최신의 SW와 HW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비업체인 아그파코리아(주) 박웅식 차장은 “국내 인쇄산업 환경이 OS X환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안정성 문제와 더불어 서체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총체적인 문제이므로 가격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코닥코리아 최준호 과장은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동반자로서 인쇄업계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동참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쇄관련 업계는 상생의 길의 모색하자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인쇄업계와 장비업체, 서체 업체들 간의 풀어야할 숙제는 물론, 서체업체들 간에도 조율해야 하는 문제들로 인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기로 했다. ☞



참석자

- 김범식 한국하이델베르크 대표이사
- 석금호 산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 박기억 장은테크 부장

- 조정석 서울인쇄센터 이사장
- 김유석 다이폰스크린코리아 이사
- 천대필 윤디자인연구소 부장
- 이원규 인큐브테크 상무이사

-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장
- 박웅식 아그파코리아 차장
- 강경수 한양정보통신 대표이사
- 김영철 맥플러스 대표이사

- 남원호 서울인쇄센터 TF팀장
- 최준호 코닥코리아 과장
- 홍기익 직지소프트 상무이사
- 박건영 비온드테크 대표이사